



해외 닭고기 시장 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meritrading@hanafos.com

예상대로 수입육 가격이 급등했다. 한 달 전에 불과 kg당 2,500원했던 브라질 정육(Bone Less Leg Meat, unsized)이 9월에는 3,500원대를 육박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가격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브라질 정육을 수입했던 무역회사들은 좀처럼 재미를 보지 못했던터라 대량 오더는 관심이 없었고, 많은 물량을 계약했던 업체들의 대부분은 계약물량으로 유통물량은 매우 한정적인 것 같다.

4/4분기 브라질산 가금육의 절반이상이 이미 일본 등의 국가로 계약이 되어 있어 좀처럼 오퍼가 나오지 않고 있고, 한국행 오퍼가 나온다 할지라도 오퍼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옥수수를 비롯해 원자재 관련 가격의 급등, 달러화 약세 등의 이유로 2008년에 전 세계 육계 사육원가가 10~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충분히 지속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중국산은 가공꼬치의 경우 대다수의 무역회사가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덴마크산 날개와 할랄장각(Halal Regular Whole Legs)의 경우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가 좋은 가격대를 형성시켜 주고 있고, 또 다시 고가의 오퍼가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내산 생계시세가 조금 더 높게 지속된다면, 육계시장은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수입육 봉지에 국내산 계육을 담은 모습은 아직도 공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브라질

일본에서 4/4분기 물량을 선점하고 있다. 일정한 가격대가 형성되면 주저 없이 계약하고 있어서 물량이 좀처럼 남아있지 않고, 몇몇 팩커(Packer)의 경우 판매 물량이 매진(Sold Out)된 상태이다. 특히 한국에서 선호하는 사이즈된(80~

100Gram/pce) 정육의 경우 서서히 품귀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브라질 정육은 완전히 한국시장에 정착했다. 어떤 공장들은 국내산 보다 더 선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년 동안 일본과 같은 수입형태를 보일 것이다. 과거 일본은 50:50으로 미국산과 브라질산을 구매했으나, 현재는 10:90으로 브라질산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한국시장의 미래이기도 할 것이다.

미국

브라질산 정육(Bone Less Leg Meat)이 급등하자, 많은 업체들이 미국산 왕장각(Jumbo Whole Legs)을 대체 구매했다. 10월부터 적지 않은 물량들이 부산에 입항될 예정이다. 오퍼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쓸 만한 제품과 가격대는 만나기 힘들다.

발골 공장의 구매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종전에 '무조건 저가를 추구했던 방식에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수율과 가공비용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경쟁력이 있으면, 비싸고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산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한국의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브라질산을 선호할 것이다.

중국

매월 3~4컨테이너씩 수입하던 업체들이 8~9월에 구매계약을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다. 이는 4/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며, 질병 등의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중국에서 AI 발생이 시작됐지만, 서서히 만성화되고 있어 시장 가격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다.

덴마크

덴마크의 대표회사인 Rose Poultry제품의 품질이 또 다시 향상될 예정이다. 모업체가 로즈공장을 방문, 품질을 확인하면서 코리안 스펙(Korea Spec)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공정과정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날개(Wings)의 경우 코드 번호를 부여해서 프로세스화 하는 한편, 저품질의 날개들은 제3국으로 수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결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지난 1년 동안 수입업체들은 원가손실과 적자 생산을 감수해 왔다. 본업을 제쳐두고 타업종에 진입하는 회사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육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 그들은 재고가 없었고, 그런 까닭에 가격은 더더욱 급등했다. 지금 수입을 하기에는 경쟁업체보다 원가가 월등히 높고, 조금만 무리하면 한국시장의 특성상 또다시 손실을 볼 수 있기에 급등한 가격은 계속 해서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바람직한 긴장감’이 계속된다면, 시장은 순환곡선을 그리며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못난이’ 업체 한곳이 부자되겠다고 소위 ‘지르느’ 순간 시장은 다시 한번 깊은 골로 늘 그랬던 것처럼 빠져들 것이다. 그 ‘못난이’ 업체가 누가 될 지 자못 궁금하다. 